

# “현재 영농규모 계속유지” 90%이상

농촌지도소 농민애로 과학적 상담기능 강화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 150만 개별농가의 경영실태 및 영농의향 등 20여 항목을 조사, 전산화한 처리를 세계최초로 실시하여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조사자료는 전국 7천여명의 농촌지도사가 한가구 한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앞으로 우리 농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의 배경과 의미, 조사자료의 주요내용과 활용 방침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註>

## 지도방향 설정에 큰역할 기대

농촌진흥청의 이같은 전국 개별농가에 대한 경영실태 및 영농의향 등 조사는 우리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처방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정부가 농촌·농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이 자료에 의해 검정 지원된다면 투자효율은 물론 개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농촌지

도소를 찾아오는 농가에게 경영실태 및 영농의향을 전산화하여 화상처리로 개별농가의 특성에 맞는 작목선택, 영농규모, 농외활동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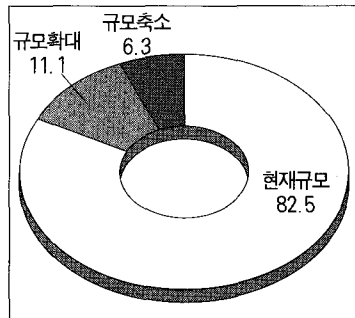
또한 작목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농가경영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작목별 기술수준별로 소단위 생산조직체를 만들고 조직체별로 전담 지도사를 배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아울러 농가별로 경영계획, 경영규모나 기술수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전문경영농 육성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농농가의 희망직종을 분석하여 농외취업 지원 계획수립등 향후 농림시책 대상의 과학화와 객관화 등 농가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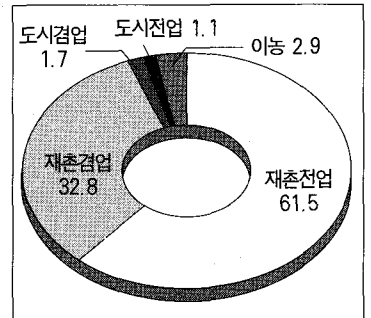
진흥청의 이 자료는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여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희망 작목을 분석, 농가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토록 하고 선택된 작목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추천과 영농모형 선정, 후계세대 육성 방안 등을 상담케 된다.

겸업농가는 농작업위탁과 농외활동 등을 알선하고 은퇴농가에 대하여는 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농가가 농촌지도소에만 오면 기술 경영농의 취업자금알선 등 농촌에 있어서의 모든 불편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윈스톱서비스」체제로 탈바꿈, 상담지도의 혁명을 예고해 주고 있다.

3년 이내 경영규모 변경계획 (단위:%)



3년 이내의 영농 의향 (단위:%)



### 영농규모 계속유지 90%이상

특히 이번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UR타결 이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영농규모를 현재의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농가가 90%이상으로 대부분이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고무적인 셈이다.

경영규모에 있어서도 3년이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농가가 11.1%이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농가도 82.5%인 반면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농가는 6.3%에 불과하고 3년이내 이농을 하겠다는 농가는 0.5ha 미만의 경지규모가 적은 농가가 대부분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겠다는 농가도 38만4천호로 전체 농가의 25.6%나 됐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의 경영주가 40%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2001년까지 영농이 가능한 농가는 약 60만호 정도로 이중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불과 13만 4천호였다.

### 벼 전업농 아직도 62.7%

벼를 주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농가수의 62.7%인 94만 호로서 아직도 벼농사 위주의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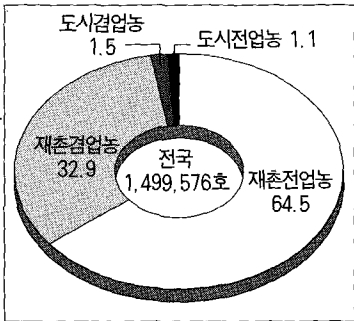
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14.9%에 22만 4천호, 과수 8.4%에 12만6천호이고 가축을 주작목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7.1%인 10만7천호이다.

주요 주작목에 대한 경영규모는 벼의 경우 3ha이상인 농가가 3.5%이며 사과는 2ha이상인 농가가 7.4%에 불과하므로 작목별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는 구조개선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영주 본인이 환산한 농가의 주작목에 대한 기술수준의 평가에서는 위로 평가한 농가가 벼 43.3%, 시설채소 48.5%, 과수 38.1%인 반면 下로 평가한 농가는 벼 8.1%, 시설채소 3.8%, 과수 8.2%로 규모확대나 시설의 현대화등이 이루어지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면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지도가 이제는 작목 기술지도 보다는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지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유형별 농가분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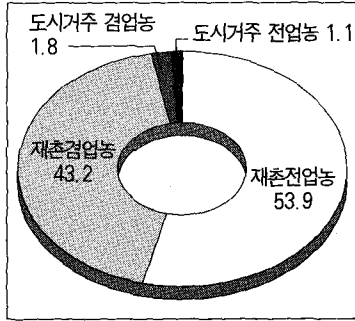
### 경영혁신 위한 기초자료 구축

**조사배경**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농가단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되는데 농가가 능력과 의향에 따라 개별 경영체제로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의 집중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농촌지도소를 기술중심 지도에서 기술·경영·취업알선 등 종합상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개별농가에 대한 구체적 경영상태와 희망사항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개별농가의 특성에 맞는 종합상담이 곤란한데 현재 농업총조사자료, 농업기본통계자료, 농민후계자카드, 농지원부 토지대장등 각종 농가조사자료등이 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각종 농가 조사자료는 개별농가에 대한 영농실태 및 희망사항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이같은 조사를 실시케 된것.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전국 개별 전농가 1백50만호로 영농규모,

영농 승계자가 있는 농가 (단위:%)



영농계획, 농촌주거의향, 승계세대, 기술수준 등 영농실태를 겸한 의향조사 내용이다.

조사는 농촌지도소 기간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지도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청취 조사로 실시했다.

조사일정은 지난 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1백6일간으로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자료 전산입력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농가부터 영농계획 등 변경사항은 계속 보완을 유지했다.

### 희망사업 기술경영 종합상담

**농가상담 기본방향** 농가의 희망사업을 평가하여 개별농가 특성에 적합한 기술경영 종합상담을 지도토록 한다. 예를 들어 농업적 육성은 전업농가로 국한시켜 ▲대·중규모 ▲전문경영 농가 ▲후계자 있는 농가 등 기간농가로 발전 지원키로 했다.

겸업적 육성은 겸업농가로 ▲중·소규모 ▲농업노동가능 농가

▲농외취업가능 농가로 농외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탈농업은 영농불능 농가로 ▲소규모 ▲노령농가 ▲후계자 없는 농가 등 사회보장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조사자료의 활용** 전산화상 처리로 개별농가 특성에 알맞은 농가 상담을 지도하되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같이 경영처방자료로 활용하고 농가유형분류와 유형별 기술·경영을 지원케 된다.

전업농가에게는 농가특성에 맞는 작목선택, 적정규모, 경영모형, 후계세대 육성 등이고 겸업농가는 농작업 위탁알선 상담 농외활동 지도이고 이농농가는 농지매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이며 노령·은퇴농가는 연금등 사회보장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자료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농촌·농업에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농가의 전산관리와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상담으로 이미 9월1일부터

상담에 들어가 상담지도내용의 전산입력과 계속적인 사후평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투자효율 극대화에 적극 활용

경영규모 기술수준을 감안한 전업농가 순위분석으로 전문경영농을 육성하고 농어촌 발전대책의 핵심시책인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 15만호 육성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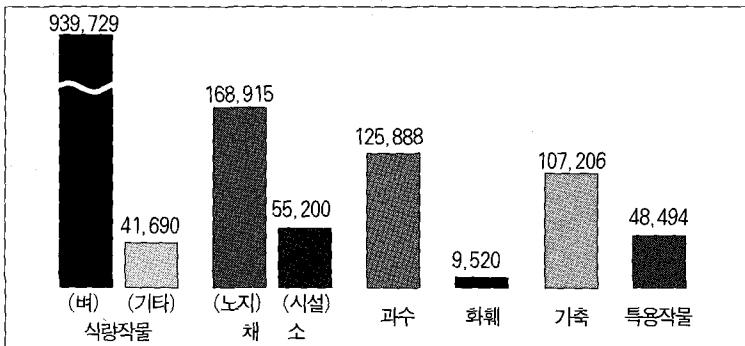
이에따라 작목별 기술수준에 따른 동호회를 구성, 상위농가는 새기술의 시범장 및 모니터를 요원화하고 경영진단 및 설계요령도 지도하여 과학영농 실천농가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

작목별 기술수준을 분석, 효율적인 기술교육은 예를들어 상위농가는 전문연구관을 파견 교육시키고 주위농가는 전문지도사에 의한 현장지도와 함께 하위농가는 선진농가 견학위주로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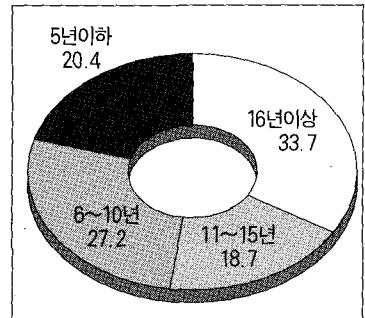
또한 작목별 기술수준별 교육대

주작목별 재배 농가수

(단위:호)



경영주의 금후 영농가능기간(단위:%)



상자 수요파악과 각종 영농교육에 대한 대상자를 선별 관리토록 했다. 영농계획의 분석은 경영형태별 전업농 육성으로 작목선택의 타당성 분석과 지역별 작목별 재배계획 분석 등 적정규모의 영농 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신규작목 재배능가파악 및 작목별 전문기술 지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실천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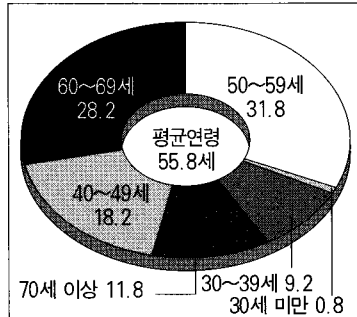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기종별 농기계 과부족 파악과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은퇴농, 탈농보유 농기계이용 및 알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공동이용(폼앗이)제도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기계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영농규모 및 영농종사시간을 분석, 위탁영농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영농회사의 적정규모를 파악, 지역별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가능성을 검토케 된다.

### 작목별 모임조성 기술강좌도

경영주 연령 (단위:%)



영농승계세대의 인적자원을 분석하여 영농후계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연도별 4-H회원, 농민후계자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1차적으로 친목계형식의 지역단위 모임회(연령별, 학력별, 경력별)조직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작목별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래 희망작목에 대한 기술강좌도 개설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탈농농가의 희망직종을 분석, 지역별 재촌탈농 희망직종 수요를 파악, 희망직종별 인적사항 파악과 취업알선을 상담하는 한편 노령은 퇴농의 파악과 연금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차 및 탈농농가의 농지 현황분석으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지역별 농지매도, 매입, 임대 및 임차의향 및 면적을 파악하고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농지구입 임차 알선계획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소유자원 및 영농의향분석은 경지·농기계·가축·인력

현황 및 영농의향 파악으로 부락의 발전가능성에 따른 부락별 개발계획을 수립케 된다.

### 시책·지도사업 자료로도 활용

이 자료는 이외에도 농정시책 및 지도사업발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분석, 활용케 되는데 ▲지역별 작목별 재배현황 및 의향 ▲연령별 경영실태 및 의향 ▲경영주 및 가족원의 영농활동 사항 ▲영농은퇴 및 전업시 농지상속 의향 ▲영농의향별 경지규모 및 경작면적 현황이다.

또 ▲가축 및 농기계보유 현황 ▲경영규모 확대 및 축소 여부별 농가성격 ▲농가성격별 농가소득 및 부채, 정책자금 받을 금액 등도 조사 분석, 개별농가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케 된다.

따라서 이번 진흥청의 개별농가 조사자료는 WTO체제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농약정보**

경영주의 취업직종 (단위:%)

